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구의 즐거움

- 철강산업 안전시스템 실태와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

전주희 회원, 서교인문사회연구실

2022년 현대제철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망사고를 계기로 철강산업의 안전시스템에 관심이 생겼다는 말은 못하겠다. 사실 그 죽음에 분노했던 것도 관심이 생겼던 것도 아니다. 건조한 몇 마디 정보로 올려진 수많은 사망사고는 나 역시도 그저 심드렁하게 지나칠 뿐이다.

유독 2022년의 사망사고가 눈에 들어온 것은 충남지역 새움터 활동가 최진일이 작성한 사고조사보고서를 우연히 읽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긴급하게 작성되었지만 상세하게 조사된 보고서는 사망사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보다 더 많은 궁금증이 생기게 했다. ‘현대제철에서 그 수많은 죽음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은 이토록 상세하고 공들인 보고서 한 장이 나오지 않았던 것일까.’

적어도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서조차 사망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원인이 공장 담벼락을 넘지 못한다면 그것은 노동조합이 져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죽음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죽음에 대해 조사하고 알릴 책임은 있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철강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조건과 삶이 궁금해졌다. 의원실을 통해 10년간의 재해조사의견서를 입수하고, 여러 통로를 통해 노동조합과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허사였다. 몇 달을 끙끙거리다 해가 지나고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다 우연찮게 금속노조에서 진행한 <작업중지권> 연구에 결합하게 되었고, 그중 현대제철 자회사 노동자를 만나게 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현대제철 현장에는 현장 관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SCR’(Safety Core Rule, 10대 핵심안전수칙) 제도가 생겼다는 얘길 들었다. 안전을 매개로 통제를 강화하는 현대제철의 내부 상황이 너무나 궁금

해졌다. 그래서 철강대표자회의에 철강산업 안전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게 됐다.

운때가 맞았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는 마침 새로 당선된 집행부가 SCR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하루는 금속노조 철강대표자회의에서 지회장이 ‘SCR 같은 제도를 금속노조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지회장은 지회 간부들더러 ‘내가 금속노조 가서 강력하게 주장했으니 조만간 조치가 내려질 것이다’라고도 했단다. 그런 상황을 모르던 우리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철강대표자회의에 연구계획을 제출했고, 연구가 일사천리로 시작됐다!

연구팀이 처음 제안한 것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노안활동을 일주일 정도 참여·관찰하는 것이었는데, 이 역시도 흔쾌하게 받아들여져서 당시엔 어리둥절했다. 아니 왜?? 나중에 알고 보니, 한노보연 연구팀이 현장에 갔을 적에 모든 지회 간부들이 ‘아 우리 지회장이 금속노조에 강력하게 항의했다더니, 드디어 사람이 내려왔구나’ 생각하고 이물감 없이(?) 우리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것이었다.

될 일은 어떻게든 된다더니. 그렇게 서로의 오해(?) 속에 연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당진공장에서 일주일간 참여연구를 수행하던 중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처음에는 너무 놀랐고, 그다음에는 어떻게든 우리가 수행 중인 연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대재해 대응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사고마저 그동안 철강산업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망사고처럼 묻히게 놔두고 싶지 않았다.

금속노조 대책위가 구성되었고, 정년을 한해 앞둔 조합원의 사망사고 소식을 대책위의 이름으로 알렸다. 그리고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지회와 지역 동지들과 사고대응 활동을 하며 연구기간보다도 더 긴 시간 동안 현대제철 중대재해 대응을 해 오고 있다. 연구는 벌써 끝났건만...

오랫동안 현장을 들여다보는 것은 연구자로서, 활동가로서 커다란 자극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아프고 고통스런 자극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얼어붙은 현장 조합원의 냉소와 무관심에 가닿을수록 그 뽀죽함이 온몸을 아프게 하고 정신을 찌르는 것 같을 때가 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그 안에서 다음의 연구 주제가 떠오른다. 그것도 매우 중요하고 매우 긴박한 주제 말이다. 그래서 현장 안에서 현장과 함께 또 다른 연구를 이어간다. 그 즐거움이란! 



▲ 철강산업 안전시스템 실태와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 (2025)